

스카우트 온라인 국제교류 희망대원 선발

전북교육청, 잼버리 JB국가대표·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온라인 교류로 세계시민 육성... 18일까지 신청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스카우트 온라인 국제교류 희망대원을 선발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잼버리 JB국가대표 지도자 3명, 말레이시아 스카우트 지도자 3명, 대원 20명을 대상으로 'Jambo Friends' 온라인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Jambo'는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스와힐리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다.

이번 국제교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대회가 2023년 우리 지역 새만금에서 개최됨에 따라 스카우트 저변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JB 국가대표와 해외 대원 간 연대의식과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 대장 및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중 국제교류 참가를 희망하는 지도자와 대원은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할 예정이다. 이후 말레이시아 스카우트에서 통보 인원 및 나이, 성별에 맞게 매칭 선발하게 된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교류(이메일, 화상회의 등)를 원칙으로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잼버리를 통한 세계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에 힘쓰는 능력 향상은 물론 세계 생활방식도 배우고 우정을 확립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다양한 글로벌 소양교육 실현을 통한 잼버리 붐-UP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비전대 평생교육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수료식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6기에 참여한 교육생 20명 전원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교육은 12개월 동안 총 700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월 열린 수료식에는 김순정 평생교육원장,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홍유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김재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최우수상인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상에는 김성애 교육생이, 우수상에는 차은아 교육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표창장에는 문해창 교육생, 그리고 전라북도 간호조무사회 표창장은 이미자 교육생 등이 각각 수상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유녀 회장은 "직장과 교육을 병행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육생 전원이 수료식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교류사회 속에서 방문간호 조무사들의 수요와 역할이 더욱 커진만큼 수료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앞으로 전주비전대가 훌륭한 교수진과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우수 인력 양성에 앞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장상을 받은 김성애 교육생은 "교육과 실습에 참여해야 하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간호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노인장기요양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보건복지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선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가정 방문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동물원 주변이 아이들 놀이터로!

생태동물원·임금님숲·어린이창의체험관 등 뛰 놀 수 있는 공간 '곳곳에'
전주지역 다섯번째 유아숲체험원 들어서... 시, 특색있는 놀이공간 확대키로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숲 놀이 공간인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특히 전주지역 다섯 번째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서는 공간 인근에는 아이들이 즐겨 찾는 생태동물원과 어린이창의체험관, 건지산에 조성된 숲속 놀이터인 임금님숲과 배재이숲, 덕진공원에 들어선 맑게숲과 맑게하루스 등 위치 이 일대가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호랑이 쌍둥이 형제와 늑대 5남매 등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도 했다.

전주동물원과 맞닿은 건지산 조경단 인근에는 아이들이 숲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아이숲인 '임금님숲'이 위치해 있다. 지난 2018년 전주이씨의 시조의 묘소인 조경단의 유래를 담아 '임금님숲'으로 명명된 이곳은 편백나무향이 가득한 곳으로 조성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들 중심으로 많은 아이들이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님숲에는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 9925명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총 1만 6889명이 찾기로 예약된 상태다. 일 반 방문객을 포함하면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동물원 주차장을 따라 올라가면 다다를 수 있는 '배재이숲'으로 이름 그대로 병까딱까 배재이처럼 놀 수 있도록 조성된 곳으로 짙린과 나무무늬를 띠고, 밧줄놀이, 통나무 시소 등 자연소재로 된 다양한 놀거리가 풍부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전주동물원과 함께 전주시민들의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인 덕진공원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생겨났다. 지난해 어린이날을 앞두고 공식 개장한 덕진공원 맑게하루터는 덕진공원 옛 수영장 부지에 들어섰으며, 아이들이 자연을 벗 삼아 놀 수 있는 '맑게숲'과 날씨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인 '맑게하루스'로 꾸며졌다. 또 같은 날 덕진동 하가지구 주택가에는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반영돼 독특한 형상의 인공언덕 놀이대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모험심을 키워줄 '짙리'와 '바구니 그네' 등이 설치된 '모험놀이터'인 '최종구리공원'이 개장식을 갖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북독립운동추념탑 인근 송천동 옛 어린이회관도 지난 2019년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탈바꿈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찾고 있다. 이곳은 미세먼지나 쿨은 날씨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실내놀이·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져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시는 향후에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답게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놀이를 즐기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놀이 공간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야호생태·숲 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교육 등 전주시 야호 5대플랜은 '도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곳곳에 아이들을 위한 책 놀이터, 숲 놀이터, 예술 놀이터 등 아이들이 상상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비전대 장진수 교수, 교육부장관상 표창

전주비전대학교 장진수 교수(컴퓨터정보과.사진)가 최근 유공 교원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발전에 공헌한 우수 교원을 발굴·표창하고 있다.

장 교수는 학생들에게 해킹 및 정보보안 분야 등을 강의하며,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상담 및 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도해 왔다.

그는 현재 전주비전대 정보전산원 원장으로서, 대학의 정보인프라를 개선하고, 학교 학사행정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의 모든 학사, 행정, 회계시스템을 통합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대학의 행정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